



행사취소보험 시장 현황과 과제

정인영 연구원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 각국에서 행사 취소가 연이어 발생하자, 행사의 취소, 연기, 중단, 변경 등으로 인한 비용 손실을 보상하는 행사취소보험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올림픽을 비롯하여 월드컵 테니스대회 등 대규모 스포츠행사 조직위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행사취소보험에 가입해왔음. 한편, 국내에서도 일부 손해보험회사가 행사 취소로 인한 위험을 담보하고 있으나, 시장 규모는 미미한 수준임. 현 상황은 행사취소보험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어, 향후 보험회사는 행사취소보험 시장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음

영약

■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세계 각국에서는 축제, 문화공연 등을 비롯하여 국제 스포츠 경기¹⁾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행사 취소가 발생하고 있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일본올림픽위원회(JOC)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로 2020년 7월 24일 개최 예정이었던 도쿄 하계올림픽을 2021년 7월 23일로 연기하기로 결정함²⁾
 - IOC와 JOC는 대회연기로 인한 경기장 재임대 비용, 직원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피해규모를 3천억 엔(약 3조 4천억 원)으로 추산함³⁾
- 스포츠마케팅에이전시 Two Circles 분석에 따르면, 2020년 예정된 주요 글로벌 스포츠행사의 47% 가량이 취소되어, 코로나19 발생 전 예상수입의 약 620억 달러(약 76조 원) 감소가 예상됨⁴⁾

1) 세계적 스포츠 행사인 British Open 골프대회, Wimbledon 테니스대회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초로 취소를 결정함 (Washington Post(2020. 4. 6), "British Open canceled for the first time since World War II"; The New York Times(2020. 4. 1), "Wimbledon Canceled: A 'Kick in the Gut' Not Felt Since World Wars")

2) IOC NEWS(2020. 3. 30), "IOC, IPC, Tokyo 2020 Organising Committee and Tokyo metropolitan government announce new dates for the Olympic and Paralympic Games Tokyo 2020"; 1916년 제6회 베를린 하계올림픽(제1차 세계대전), 1940년 제12회 도쿄 하계올림픽(중일전쟁), 1944년 제13회 런던 하계올림픽(제2차 세계대전), 제5회 삿포로 동계올림픽(중일전쟁), 1944년 제5회 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제2차 세계대전)이 전쟁을 이유로 취소된 바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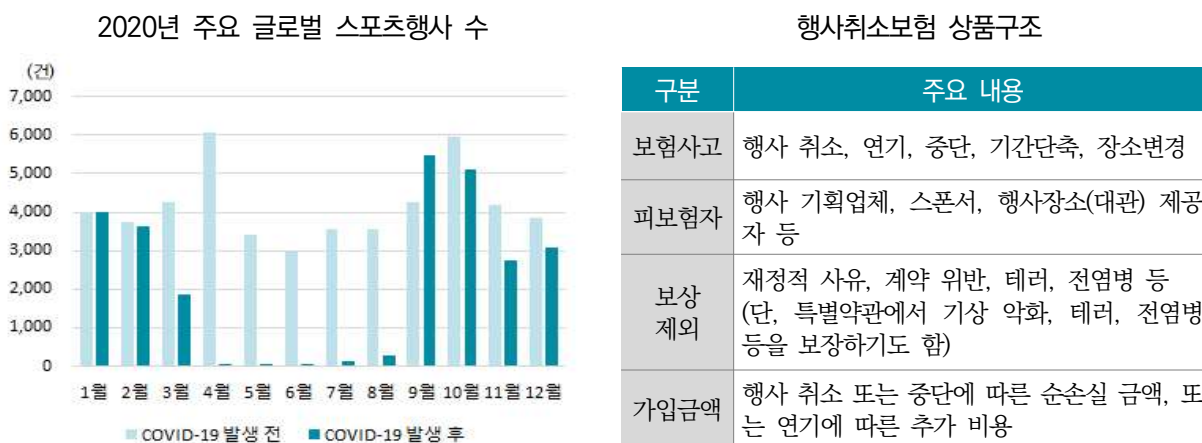
3) 日本経済新聞(2020. 3. 25), "会場借り換えや人件費…五輪延期費用3000億円規模"

4) ESPN(2020. 4. 20), "Agency: Coronavirus to cancel nearly half of scheduled sports events in 2020"

■ 이에 행사의 취소, 연기, 중단, 변경 등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행사취소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행사취소보험(Event Cancellation Insurance or Non-Appearance Insurance)은 행사의 취소, 연기, 중단, 행사기간 단축, 행사규모 축소 등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담보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의 한 형태임⁵⁾
 - 보상금액은 행사 취소 또는 중단에 따른 순손실 금액 또는 연기에 따른 추가비용임
- 행사 주최자의 통제를 벗어난 우연한 사고를 보험사고 대상으로 하며, 전쟁, 행사국가 또는 국제사회의 정치 급변, 테러, 기후변화 등 불가항력적 자연재해, 행사 주최측의 재정 사유, 전염병 발생 등에 따른 손실은 일반적으로 보상하지 않음
 - 다만, 특약을 통해 다양한 위험을 확장하여 보장하는 것이 가능함

〈표 1〉 글로벌 스포츠행사 취소 현황 및 행사취소보험 상품구조



자료: Two Circles(2020. 4. 20), “Covid-19 set to halve 2020 sports calendar-new analysis”

자료: JLT, Allianz, Chubb 등임

■ 해외에서는 IOC를 비롯하여 FIFA 월드컵대회, Wimbledon 테니스대회 조직위원회 등이 국제스포츠행사 운영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행사취소보험에 가입해 왔음

- IOC는 2004년 아테네 하계올림픽부터 테러, 전쟁,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행사 취소에 대비해 보험회사들로 구성된 신디케이트(Lloyd's of London) 또는 재보험사로부터 보험상품을 구매해 왔음⁶⁾
 - 이번 도쿄 올림픽 준비과정에서도 Munich Re, Swiss Re, AXA 등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보험가입금액은 Munich Re 수 억 달러, Swiss Re 2.5억 달러인 것으로 알려짐⁷⁾

5) JLT, Allianz, Chubb 등의 약관을 참조함

6) ESPN(2004. 4. 27), “AP NewsBreak: IOC gets cancellation insurance for Athens Olympics”; 한편, 동계올림픽의 경우 2006년 이탈리아 토리노 동계올림픽부터 올림픽 개최 취소를 담보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함(Business Insurance (2006. 2. 5), “Winter Games covered against cancellation”); IOC의 행사 취소 대비 보험료 규모는 대회 운영 예산의 1.5~3%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2014년 소치올림픽에 757만 달러, 2016년 리우올림픽에 1,438만 달러, 2018년 평창올림픽에 1,280만 달러를 보험료로 지출하였음(IOC, Annual Report 각 연호)

- 보상하는 손해는 IOC가 입게 되는 수익상실금액으로 통상 TV중계권료 수입, 입장료 수입, 스폰서 후원 수입금 등임⁸⁾
- FIFA 월드컵대회, Wimbledon 테니스대회 조직위원회 등도 대회 준비 과정에서 동 상품에 가입해 옴
 - FIFA 월드컵 조직위원회는 2014년 월드컵과 2018년 월드컵 준비를 위해 12.5억~15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보장하는 행사취소보험에 가입하였음⁹⁾
 - Wimbledon 테니스대회 조직위원회(The All England Club)는 2003년 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발생에 대한 우려로 바이러스 관련 담보 조항을 추가한 이후,¹⁰⁾ 지난 17년간 보험료로 매년 약 200만 달러를 지출해 왔는데, 올해 대회가 취소되어 약 1.41억 달러의 보험금을 수령함¹¹⁾

■ 대규모 행사 취소로 인해 관련 담보를 제공한 보험회사들의 손실(지급보험금) 규모는 보험약관상 면책 범위 및 보험금 지급분쟁 과정에서 법원해석에 따라 변동할 수 있어 진행 경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약관 해석, 행사취소와 코로나19 간 인과관계 규명 여부, 면책사유 입증책임의 주체(보험사 또는 피보험자) 등이 보험금 지급과정에서 논란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임¹²⁾
- 이에 일부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향후 전염병으로 인한 광범위한 손실 및 분쟁 방지를 위해 관련 상품의 지급기준과 보장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¹³⁾
 - 2003년 SARS 사태 이후 보험회사가 SARS를 보장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한 사례가 있음¹⁴⁾

7) Reuters(2020. 2. 28), "Insurers could lose billions if coronavirus prompts Olympics cancelation"; Insurance Journal(2020. 3. 25), *AM Best Warns Losses Could Be Big for P/C Insurers Writing Event Cancellation Business*; Insurance Journal(2020. 2. 28), *Global Insurers Face Hefty Claims If Coronavirus Forces Olympics Cancellation*; Insurance Insider(2020. 4. 3), "Axa faces EUR 15mn Olympics postponement loss"; 다만, IOC가 가입한 상품은 행사 취소만 보상할 뿐 연기에 따른 손실은 보상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IOC가 도쿄올림픽 연기에 따른 수익 달러의 추가비용을 감당해야 할 것으로 예상됨(ABC News(2020. 4. 13), "Delay costs IOC 'several hundred million': Japan pays rest")

8) IOC의 주 수입원은 스폰서료 및 방송중계권료로 올림픽 연기 또는 취소에 따라 방송중계권을 보유한 NBC의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임. NBC는 2014~2020년 4번의 동·하계 올림픽 중계권료로 IOC에 43억 8,000만 달러(약 5조 원)를 지불하였음 (IOC(2020), *Olympic Marketing Fact File*)

9) Insurance Journal(2020. 2. 28.), *Global Insurers Face Hefty Claims If Coronavirus Forces Olympics Cancellation*

10) Mail Online(2020. 4. 3), "Wimbledon organisers set to net £100MILLION insurance payout after taking out infectious diseases cover following 2003 SARS outbreak, with tournament now cancelled because of coronavirus"

11) Boston Globe(2020. 4. 8), "Pandemic insurance package will allow Wimbledon to recoup \$141 million, per report"

12) 즉, 보험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행사취소라는 사건이 담보위험(코로나19)의 유일하고 직접적인 결과(The sole and direct result of a cause not otherwise excluded)이어야 하는데, 이러한 '법적 인과관계(Proximate Causation)' 입증 책임의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 하는 문제가 존재함(ZELLE(2020. 4. 6), "The Impact of The Coronavirus On The Entertainment Insurance Industry-Preliminary Issues to Consider in the Adjustment of Claims"; HFW(2020. 3), "COVID-19 - Business Interruption and Event Cancellation")

13) Insurance Journal(2020. 2. 13), *Insurers Rush to Exclude Coronavirus Epidemic from Event-Cancellation Protection*

14) A.M. Best(2020. 3. 24), "Event cancellation insurers in for a rethink of strategy"; Wall Street Journal(2020. 3. 13), *When Big Events Get Canceled Due to the Coronavirus, Who's on the Hook?*

■ 한편, 국내에서도 일부 손해보험회사가 행사종합보험, 행사취소보험¹⁵⁾ 공연종합보험¹⁶⁾ 등의 명칭으로 행사 취소로 인한 위험을 담보하고 있으나, 시장 규모는 미미한 수준임

- 행사종합보험은 기업보험(특종보험)의 한 형태로 재물손해, 상해, 배상책임, 행사취소 위험을 담보하는 종합보험이며, 기업(계약자)이 원하는 담보만 선택하여 가입이 가능함
 - 재물손해 및 상해, 배상책임¹⁷⁾보험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행사취소위험 담보가 필요한 경우 행사취소보험을 별도로 가입하는 형식으로 운영됨
- 행사종합보험 수입보험료는 증가 추세에 있으나, 전체 수입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함
 - 2017년 기준, 수입보험료는 약 3억 3천만 원으로, 2011년 대비 약 25배 증가하였음
 - 총 가입금액은 약 1조 1,600억 원으로, 기본담보에 해당하는 동산(10.4%)과 신체상해(사망·후유장)에 77.6%, 의료비 11.6% 담보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배상책임담보는 0.4%임

〈그림 1〉 국내 행사종합보험 현황



자료: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자료: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통계연감 2018』

■ 팬데믹(Pandemic) 발생으로 대규모 행사들이 취소되고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은 행사취소보험의 역할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어, 향후 보험회사는 행사취소보험 시장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음

-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각종 국내 행사¹⁸⁾가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어, 기업(행사주최자)의 행사취소위험 관리에 대한 인식을 일깨우고 있음 **kiri**

15) 글로벌 스포츠 행사인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국내 보험회사가 참여하였음

16) 과거 삼성화재는 1999년 마이클잭슨 내한 공연 당시 행사 취소 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위험을 담보하였으며(매일경제(1999. 6. 21), “삼성화재, 마이클잭슨 공연 보험인수”), 그린화재는 2002년 가수 서태지의 ‘2002 ETPEST’ 공연보험을 인수했는데, 총 보험금은 102억 원(공연자상해: 72억 원, 관중상해 및 시설보유배상책임: 30억 원)으로, 영업배상책임보험, 시설소유관리자 특약, 구내치료비담보 특약 등도 포함됨(매일경제(2002. 10. 24), “그린화재, 서태지 공연보험 인수”)

17) 피보험자가 관리하는 시설의 결함, 피보험자가 공급하는 제품이나 이와 관련한 업무상 과실로 인해 제3자의 신체 또는 재물에 피해를 입힌 경우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는 법률 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함

18) 2020년 세계 쇼트트랙 선수권 대회 개최(3월, 서울) 취소, 2020년 한국프로야구(KBO) 개막 연기(3월→5월) 등임